

마음을 채운 9일간의 여름내

양대석 (러시아어 4)

나의 첫 농활은 93년 가을농활(2박 3일)이었는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 봉곡리라는 곳이였다. 이번에 농활간 북두 1리 바로 옆동네다. 사실 첫 농활에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기간이 짧아서인지 그땐 농민들의 삶에 대해 배운 것은 별로 없었고, 단지 농활기간의 선배, 동기들과 보낸 시간들이 기억에 남을 뿐이었다. 시골의 깨끗한 밤하늘과 농민들의 소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선 한동안 농활을 안 갔었고 96년 여름에 다시 석산 2리라는 곳에 농활을 가게 되었고, 올해는 북두 1리에 갔었다. 이제는 새내기 시절의 느낌과 달랐다. 후배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다. 농활을 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철저한 집단생활을 한다. 아침 6시엔 일어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운동과 청소를 하고 세면 후에 식사를 하게 된다. 식사 때는 김치 한 조각까지 남기지 않고 토포 먹는게

원칙!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음식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면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나가게 되는데, 흔히들 '죽음의 피사리'라 불리는 논일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피사리 작업은 논에서 허리를 굽혀서 종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익숙치 않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숙소(마을 회관)에 오면 서로 허리를 안마해 주곤 한다.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일들을 몇가지씩은 모두가 가져온다. 하루의 모든 작업이 끝나면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자세와 느낀 점, 그리고 농활의



기조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등을 총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저녁식사가 끝나면 농활의 꽃이라 불리는 분반활동을 하게 된다. 장구소리에 섞여나는 아주머니의 웃음소리, 한잔 술을 비우며 학생들과 정담을 나누는 아주씨들... 농활에 관한 얘기의 절반도 못 쓴 듯 하다. 8박 9일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다. 선배에게 하나는 후배, 푸석식 화장실이 넘칠 것 같아서 '통과조'가 생기고, 실수로 농약을 마신 후배, 후발대로 혼자 찾아오다가 다른 동네(석산 2리)에 들어가 뜻하지 않게 작년 이장님을 모셔 오게된 후배, 논에서 설 수 있다면서 연습하는 후배, 중간 총화하는 날의 각 조별 발표 등 잊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최근 국제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 남한의 자급률도 20%가 조금 넘는다고 한다.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남한은 경제난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 설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농촌은 바로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곳이다.

미리 체험해 본 의사생활



백학순 (의학 분과 2)

'썩' 아아' 의료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려 바지를 적시더니 출발하는 아침까지 비가 내린다. 유난히도 커 보이는 차에 몸을 싣고 상현에 빠진다. 마음의 짐을 안고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그런가. 활동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들이 제기된다. 의료활동을 매년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우들

이 공동의 활동에 관심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후자는 너무 심각한 문제제기인 것 같고, 전자는 첫 의료 활동이기에 그 답을 활동을 통해 찾아보는게 좋을 듯 싶다. 차는 잘 달린 고속도로를 타고 달린다. 며칠간의 장마비에 산천이 모두 푸르러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 귀천에 관계없이 동식물 누구에게나 자연의 법대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자연이 아름다워 보인다. 도착한 전북 임실도 마찬가지였다.

의료 활동 기간 내내 의사무소 넓은 회의실이 분주한 모습이다. 진찰시간이 길고 의사, 환자간의 친밀감이 강한 분위기이다. 환자들 90% 이상이 만성관절염과 소화불량이라는 공통질환을 보였다. 처방하는 약제와 주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3-5일분의 약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배워서 그랬을까? 눈치 빠른(?) 환자는 그 다음날 또 온다. D.M foot (당뇨병으로

인해 발의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해 상처부위에 이차감염이 발생, 발이 썩어들어가는 병)환자가 왔다. 출혈과 악취가 진료실에 가득하다. "그 정도로 되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대답은 간단했다. "차비도 없고 데려다줄 사람도 없어.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몸이라 부르기도 뭐하드만" 환부의 소독과 압박붕대를 감고 말한다. "음식 조절 잘 하세요. 병원 제때에 꼭 가시구요, 소독 매일 하세요. 여기 약 있습니다." 다음 환자가 늦을새라 처방전을 급히 내린다. 의료행위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경

우 관점만을 줄일 수 있도록 고된 노일 발일 안 하도록 하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늙고 병들어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기만 한것일까. 자본의 논리에 따른 미국식 의료의 민영화 아닌, 적어도 의료만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호텔같은 병원보다는 서울역에 거거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생계주도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00여 명의 농민들을 진료하며 의료활동이 봉사의 의미가 아닌 학생으로서 배움과 느끼는 것이며 학교의 이미지 제고는 당위가 아닌 실질적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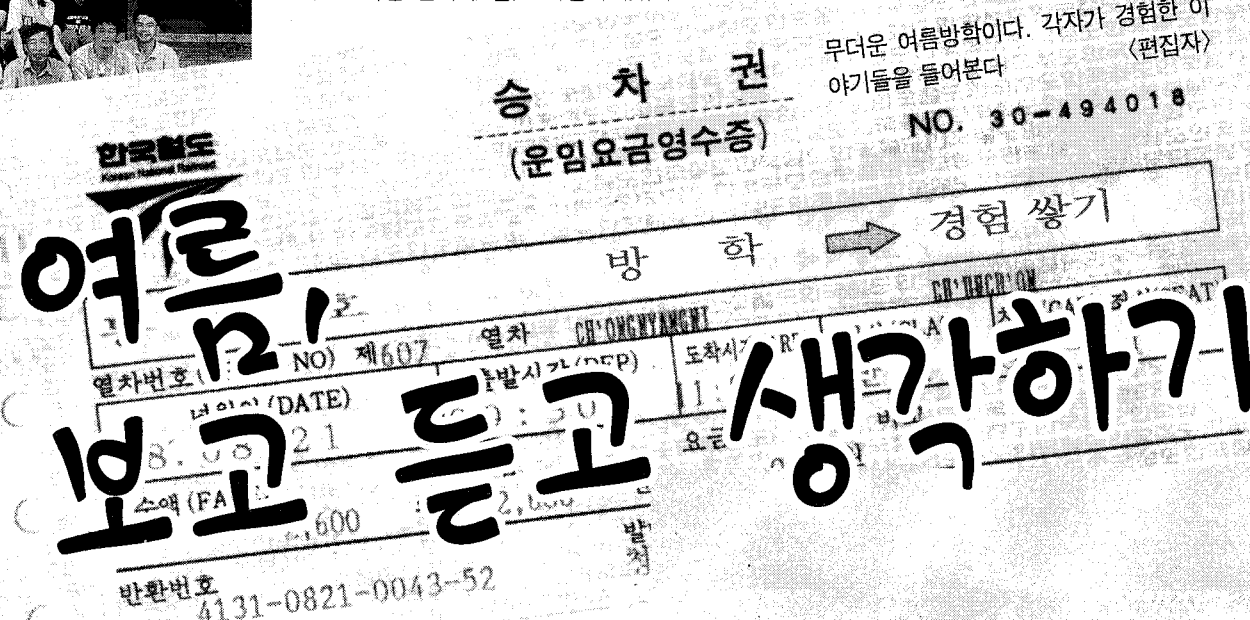
DEEP

(Dormitory Environment English Program)

영어의 바다에 빠져버린 나

김창섭 (경영대학원 산업안전 관리학 석사 2기)

어느새 DEEP에 참가한지 3주가 지나고 있다. 파도가 출렁이는 여름 해변의 유혹을 물리치고 양산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입교식에 참가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끝난지 얼마 안가 있다. 세월이 가도 실패하지 않는 영어는 항상 내 맘 한켠에 자리잡은 집이었다. 마치 꼭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처럼 팔해도 영어가 맘에 걸렸고 극복하려던 여러 번의 노력들은 일상의 작은 이유들로 번번히 무너졌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등록하고도 열심히 다니지 않은 여학생의 등록금증수를 보는 것은 썩 유쾌하지 않다. 나에게겐 뭔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어에 대한 느낌과 외국문화에 대한 느낌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이다.



DEEP은 그런 점에서 나의 마음을 끌었다. 무엇보다 기숙사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루종일 영어만 쓰는 점, 그리고 단편적으로 듣거나 쓰기,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영어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더운 여름 짧은 기숙사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대끼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정도 쏘아늘어나는 나의 영어실력에 불려버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런 의기양양함과는 달리 처음에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빠른 말과 무의식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한국어 때문에 약간 고생스러웠다.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는 아는 단어를 모두 기억하고 거기에 비대칭귀까지 동원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럴때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돈다. 외국인과의 대화한다면 실수하지 말아야

지 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끼리 대화하니까 동질감에서 나오는 재미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답이 가진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영어와 먼저 친해지고 실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창함을 길러 주는 교육방법 말이다. 물론 미흡한 점도 많다. 기숙사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미흡한 시설이고 에어컨이 없는 강의실에서 오후 강의를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고 천천히 말하면서 정확한 뜻을 전달해주는 교육에

환경활동

늘 푸르거라, 고래산이여

염창근 (국어국문 3)

도심을 빠져나가면서 주위는 점점 한산해지고 건물은 낮아지고 차량은 줄어들었다. 남양주시 차산리. 들과 산들은 싱그러움에 반해있었다. 어느새 짙은 녹색으로 물이 올라 있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차산리는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건국대, 서울산업대, 수원대 환경현장 활동대원들이 미리와 광안 운동장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을 대책위원회 어른들과 주민들이 마중나와 있었다. 대학생들의 흰찬발대식에 박수를 쳐 주시면서 '또 와주었구나' 하고 기뻐하셨다. 어른들 얼굴에는 다소 지친 모습이 보였지만, 조금은 여유로운 듯 했다. 작년 한 해동안 전기톱을 든 인부들과 폭력적으로 연행하던 경찰들과 대치하느라 차산리가 온통 폭풍전야처럼 긴장의 도가니였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평화로웠고 담담했다. 도로정거, 도청항의 방문, 언론보도, 수차례의 서울집회, 학생들의 등교거부, 실제 싸움 등 이루 말하기가 다 어려운 일들이 작년 한해동안 정말 있었는 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단지 멀리 고래산의 한지락에 벌목된 흔적과 작년 환경현장활동대가 걸고 간 플래카드 몇 장이 나뉘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초소들이 그때의 투쟁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아직 서 있었다. 대원들은 걱정만, 열의 반으로 광안 운동장에서 힘찬 발대식을 가졌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이었다. 환경 파괴의 현장에서 민중과 연대하려는 환경현장활동대는 도착하자마자 혼신을 바쳐 시작했다. 이미 완공가능성이 희박해진 골짜기 건설, 임청원 경기도지사와의 합의 계획 등은 10년동안이나 계속되어온 환경활동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환경활동의지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대원들은 처음에 세운 민중과의 연대방향이던 현장활동의 목표를 수정해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의지를 고취하여 다시 단결의식을 불일 계획을 세웠다. 낮에는 일손을 돕거나 대원들과 토론을 했으며, 밤에는 분반활동과 평가를 진행하면서 매일의 일정을 힘차게 진행시켜 나갔다. 사실 골짜기 문제에 관해서는 여타 환경대원들보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기에 대원들이 배우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과의 토론과 비디오 상영, 간담회 자리를 매일 가지면서 환경파괴의 진상을 알고 환경(정확히 표현하면 '생태')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논의해 나갔다. 주민들과의 토론과 간담회, 강연회를 열고 체육대회, 고래산 등반대회, 주민·학생 한마당 등을 함께 하였다. 물론 나중평가는 냉정하게 진행하였다. 주민·학생 한마당에서는 숙명여대 아동들의 운동장기와 송실대·경희대 부녀자반의 인형극이 인상 깊었다. 일정을 마치고 해산식을 하면서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웠다. 모양새는 장승같아 보이지만 장승에 쓰여진 '고래산 지킴이'라는 글은 한번 더 대원들과 주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켰다. 마침 때를 맞추어 박세리가 먼 타국에서 골짜기왕으로 등극하였다. 비록 타지에 가서 선전하는 것은 칭찬할만 하지만 국내에 골짜기 왕을 일으켜 골짜기 건설 규제가 완화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다. 골짜기 건설로 인해 전지구적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어 간다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일산마을에서 여러 대원들이 미더가 넘는 큰 돌을 세워 글을 새겨 놓고 왔다. '늘 푸른 고래산'. 영원히 푸르기를 기원한다.

LG 21세기 선발대



7월

8월 새벽, 라스베가스를 떠난 비행기는 마지막 방문 도시인 미시시피의 비록시(Biloxi)로 향하고 있다. 시차적응 실패와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모두가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스쳐지나는 지난 몇 달간의 준비과정, 큰 기대와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었다. 2001년 강원도 정선에 문을 열게 될 국내 최초의 한국형 카지노 리조트, 그 성공의 열쇠를 찾아서 미국의 주요 카지노들을 다녀왔다. 지난 3월부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LG 21세기 선발대에 최종 선발된 것이 5월말. 그로부터 약 한 달간 우리 세 명은 카지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한국 관광산업과 지역개발 관련 문화조사활동을 비롯,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강원도 현지조사도 다녀왔다. 대기업의 지원으로 외국을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사전조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탐방활동 성공에 대한 의욕을 한층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도리어 7월 1일 김포공항. 팀원 모두가 외국에 나간 경험에 있었지만,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태평양을 건

반제 인터넷 전술을 하루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이후로 우리는 숙소 선정에서 인터넷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불상사는 한번으로 끝났지만, 매일매일 인터넷 중계를 위해 늦은 잠자리를 청해야 했던 것은 피할 수가 없었다. 총 10개의 관련기관을 방문한 우리 팀은 의외로 많은 기관에서 친절하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정도로 귀빈(?) 대접을 받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방문했던 네바다 대학의 주드 코넬리우스 교수와 마지막 방문지였던 비록시의 빈센트 주드 교수는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준 것 외에 팀의 탐방 일정까지도 자상하게 챙겨주었다. 덕분에 어려운 것으로 예상했던 카지노 매니저와의 면담을 수차례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차로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인 타호(Tahoe) 호수를 관광시켜 주기도 했다. 빈센트 교수는 비록시 시장의 공보 담당자로 시청의 거의 모든 사무실을 돌며 우리를 인사시켜 주고, 여러개의 유료박물관들을 공짜로 둘러보게 해주었다. 그를 통해서 운 좋게도 우리는 지역방송국의 뉴스에 출연하는 행운도 잡을 수 있었다. 그외에 많은 사람들과의 일들이 2주간의 짧은 기억을 가득 채우고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김호기 (사회대 경영학부 4)

너는 동안에도 그 또다른 느낌이 바로 커다란 부담감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듯 했다. LA를 경유해서 도착한 첫 번째 탐방도시인 네바다주의 리노(Reno)에서 우리 팀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다. 총 30개 팀 중 8개 팀이 진행하는 인터넷 상중계 활동을 위해 노트북으로 작성한 일지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전송하려는 순간, 호텔의 전 화기는 안타까운 신호음만 울리고 있었다.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카운터의 최종적인 답변을 뒤로 하고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갔지만 새벽까지 거리를 헤매고도 우리는 첫